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3. 21.(금)

한-미, 굳건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

- 안덕근 장관, 미 에너지장관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 개최(3.20)
- 민감국가,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 위해 협력키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20(목)(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사무관	윤다은 (044-203-51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